

##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진단된 제1형 다발성 내분비종양 1 예

<sup>1</sup>한국의학연구소, <sup>2</sup>인제대의 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\*권우혁<sup>1</sup>, 김윤철<sup>2</sup>, 지삼룡<sup>2</sup>

**서론:** 위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 종양은 흔하지 않지만, 최근 건강검진과 연관된 상부내시경 검사의 증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, 병태생리에 따라 제1형부터 제4형까지 분류할 수 있다. 신경내분비 종양 제2형중에서 제1형 다발성 내분비 종양(MEN1)은 5~6%정도로 매우 드물며, 특징은 부갑상선의 증식, 췌장과 십이지장의 신경내분비선종양과 뇌하수체전엽선종의 동시 발생이다. 본 증례는 건강검진 상부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위의 종괴로 인해 제1형 다발성내분비종양(MEN1)이 진단된 예이다. **증례:** 42세 여자 환자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위내시경상 종괴 소견으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상 5년전 myoma로 인한 hysterectomy를 제외하고는 특이 소견 없었다. 가족력상 친언니가 췌장, 직장, 비장 절제술 시행받은 적 있으며, 복부진찰 및 특별한 증상호소는 없었다. 혈액검사 소견에서 칼슘수치가 10.6mg/dL 으로 정상치(8.6-10.4mg/dL) 보다 상승되어 있었으며, 인수치는 1.6mg/dL(2.6-4.4mg/dL)로 정상치 보다 낮았다. 타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소견상 상부체부 후벽에 종괴가 관찰되었고(그림 A), 초음파 내시경상 점막하층을 침범한 저에코의 종괴가 관찰되었다. 조직검사 결과 Chromogranin, Synaptophysin 양성소견이었으며(그림 B,C) Ki-67 index 는 1.97%(그림 D)으로 신경내분비종양 소견이었으며, 추가로 시행한 PET/CT 상 부갑상선의 intake 증가소견(그림 E, arrow)과 Brain MRI T1 image 에서 pituitary adenoma(그림 F, arrow) 소견이 관찰되었다. 추가로 시행한 혈액검사상 PTH-Intact, Prolactin 수치가 정상치보다 상승되어있었으며, 유전자 검사에서 MEN1 on Chromosome 11q13 gene mutation 확인되어 제 1형 다발성 내분비 종양(MEN1)으로 최종 진단하였으며 현재 약물치료와 함께 수술을 계획 중에 있다. **결론:** 다발성내분비종양은 드물지만 최근 건강검진 수검률의 증가로 발견이 증가하고 있어, 자세한 병력청취와 추가검사 등의 정확한 감별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

